



##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

©아세르 인트레이터, 2008 년 10 월 18 일

토라(모세 율법)의 기록한 날들을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.

하그(*Chag*) - 절기라는 뜻, 원으로 모이거나 춤춘다는 어원에서 나온 말.

모에드(*Mo'ed*) - “정해진 때”라는 뜻, 사명 혹은 목표를 가리키는 어원에서 유래.

하그는 기념적인 면을 강조하고, 모에드는 예언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

### 메시아의 두 번 오심에 대한 두 부류의 성일(Holy Day, 聖日)들

토라의 성일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. 세 개는 봄에, 세 개는 가을에 있습니다. 봄의 성일들은 예슈아의 초림과 연결되고, 가을의 성일들은 재림과 연결됩니다. 초림의 가장 큰 세 가지 구속사는 모두 그와 연관된 봄의 성일들의 날짜와 연결이 돼있습니다.

페사흐 (유월절) - 십자가

오메르 (초실절) - 부활

샤부오트 (오순절) - 성령 강림의 역사

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서, 우리는 또한 세 가지 중대 사건이 일어남을 봅니다. 환란과 재림, 그리고 천년 왕국입니다. 우리는 이 일들이 그것들을 예표하는 성일들과 연결됨을 깨닫습니다.

트루아 (나팔절) - 환란

키푸르 (속죄일) - 재림

쑤코트 (장막절) - 천년 왕국

### 나팔절에 대한 혼란을 말끔히 없애자

욘 트루아(레 23)와 욘 키푸르(레 25) 모두에 나팔을 불도록 명하신 것에 대한 혼란이 좀 있습니다.

욘 트루아에 나팔을 부는 것은 여리고 전투(수 6)에도 나타났고, 이스라엘 진을 움직일 때 (민 10), 그리고 각종 종교적, 국가적, 군사적 모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. 트루아에 쇼파르를 부는 것은 행동으로의 부르심이자 예언적 경고였습니다.

성경에 나타난 나팔의 대부분은 욥 트루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나팔들은 요한 계시록의 일곱 개 나팔로 성취됩니다. 일곱 번째 나팔은 이 세상의 왕국들이 예슈아의 왕국으로 인계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(계 11:15). 이는 마치 여리고에서의 일곱 번째 나팔로 사람들이 달려나가며 도시를 정복하게 된 것(수 6:20)과 같습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왕국을 무력으로 빼앗을 준비를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(마 11:12, 단 7:18). 왕국의 승리로 이어지는 영적 전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.

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이 “최후의, 위대한 나팔”은 아닙니다. 마지막 나팔은 욥 키푸르와 연결되어 있고, 희년의 시작에 대한 상징으로 붙어집니다. 이 특별한 나팔은 다음의 구절들에 나타납니다.

출 19:13, 16, 19 - 시내 산

레 25:9 - 욥 키푸르

사 27:13 - 죽은 자의 부활, 휴거

마 24:31 - 재림, 휴거

고전 15:52 - 재림, 부활, 휴거

살전 4:16 - 재림, 부활, 휴거

이 특별한 나팔은 하나님 자신의 나팔로, 역사상 두 번만 붙어집니다. 한 번은 시내 산에서였고, 또 한번은 재림 때입니다. 예슈아께서 하늘의 만군을 이끌고 내려오실 때 다시 친히 부실 것입니다 (계 19:11). 천사장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불지 않을 것입니다 (살전 4:16의 오해). 하늘의 군대 장관이신 예슈아께서 부사, 공격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(수 5:13). 성경의 패턴을 따라, 이 순간은 욥 키푸르의 희년 나팔 때일 것입니다.

성전 제사에 있어 가장 큰 날은 욥 키푸르로,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유일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입니다.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묘사한 가장 큰 날은 심판의 날, 곧 “여호와와의 크고 두려운 날 (을 2:1, 31)”입니다.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날은 예슈아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날입니다. 제사장들의 “큰 날”, 선지자들의 큰 날, 그리고 왕 되신 메시아의 큰 날은 모두 같은 날을 가리킵니다. 성경의 패턴은 일관적입니다.

## 장막절의 예언적 의미

장막절을 랍비들은 큰 절기(The Great Feast), 그리고 수확의 절기(the feast of the Ingathering of the Harvest)라고 부릅니다. 토라는 이 절기에 기뻐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(신 16:15). 심지어 **오로지** 기쁨 만이 있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. 다른 모든 성일들과 마찬가지로, 여기엔 세 단계의 해석이 있습니다. 1.농경 2.이스라엘의 출애굽 3.새 언약

예언적 성취는 스가랴 14:16에서 볼 수 있습니다. “**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 남은 사람들은,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,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.**” (이사야 27:13과 비교)

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구절의 성취를 위해 예루살렘에 와서 장막절을 지킵니다. 최종적 성취는 천년 왕국 때에 있을 것입니다.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봅시다.

1. **예언** - 절기가 미래에 기념될 것이니만큼,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. 중요한 절기입니다.
2. **현재** - 과거에 명해졌고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면, 토라는 유효해야만 하고 절기들은 오늘날도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. 이것은 유관한(relevant) 절기입니다.

3. **국제** - 이것은 그저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, 열방에서 국제적으로, 문화를 뛰어 넘어 전세계에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. 거대한 절기인 것입니다.
4. **개혁** -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이 절기를 함께 지킨다면, 둘 사이에 역사적 화해가 있어야만 합니다. 이것은 통합의 절기입니다.
5. **기념** - 전쟁과 환란 이후, 해피 엔딩의 때가 올 것입니다. 기쁨과 평화, 승리의 때 말입니다. 이것은 긍정적 절기입니다.
6. **천년 왕국** - 이 일이 재림 때의 큰 전쟁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, 천년 왕국이 문자적이며 비유적이 아님이 증명됩니다. 이것은 실재적인 절기입니다.
7. **예루살렘** - 온 열방이 예루살렘, 곧 예슈아의 천년왕국의 도성으로 찾아듭니다. 그분의 지상 보좌가 그 곳에 있을 것입니다. 이것은 중심적 절기입니다.

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대해 그만한 영적, 정치적, 군사적 전쟁이 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. 스가라 14:16 은 14:2 과 같은 말씀입니다. “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,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.” 16 절에서 그들은 예배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, 2 절에서는 싸우러 온다고 합니다. 세상 모든 이들이 이 둘 중 하나의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이끌릴 것입니다.

예슈아의 영이 당신의 백성들을 예배하도록 이끌 것입니다. 그 분께서는 당신의 대적들을 싸우도록 이끄실 것입니다. (3 절에서 그 분께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나아온 “이방 나라들과 싸우실” 것이라고 말씀합니다.) 모두가 올 것입니다. 문제는 도시를 치러 오느냐 왕께 경배하러 오느냐입니다. 우리는 어느 편에서 있습니까?